

야생화를 담은 여자

'와일드플라워 린넨'

송영 대표



야생화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한 도전력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송영씨는 저그마한 체구에도 당당함이 넘쳐흐른다.

비싼 옷과 고급자동차 대신, 좋은 음식 먹고 마시며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한 건 패션 디자이너들. 필리핀 베르사체, 페라기오의 컬러링 호텔 등 아예 브랜드를 내세워 파격적인 호텔을 오픈한 디자이너들이 있는가하면, 패션 디자이너 대부분이 의류라인을 확대선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리빙 공간이 멋

져야 패션도 더욱 빛나고 삶 전체가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도 마찬가지다. 홈파티, 워딩 리셉션, 기업이벤트, 힐리웃 파티 할 것 없이 그 날의 테마에 어울리는 분위기 연출이 필수다. 이런 트렌스 속에 패션 디자이너에서 린넨 디자이너로 변신해 주류 사회 이벤트업계에서 급 부상한 한인여성이다. 행사장 전체에 색깔을 입히는 여자,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야생화를 담은 여자, '와일드플라워 린넨(Wildflower Linen)' 대표 송영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녀가 손대면 '황홀한 공간'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한인이 성공하려면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 정신과 추진력, 인내심이 필요하죠. '야생화'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그것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말이죠”

송씨가 운영하고 있는 '와일드플라워 린넨'은 워딩리셉션, 파티, 특별한 행사에 린넨을 연출하는 업체다. 단순히 린넨을 대여만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과 의자 등 린넨이 필요한 공간을 이벤트 테마에 어울리게 연출, 디자인하는 게 그녀가 하는 일이다. (린넨이란 식탁을 장식하는 천 장식품을 말하며, 1999년 파운틴 벨라에 와일드플라워 린넨을 설립한 그녀는 5년도 채되지 않아 자신의 회사를 주류 사회 탑 클래스에 속하는 린넨 디자인회사로 성장시켰다.)

지난 주말 수많은 음악팬들을 열광시켰던 그래미 시상식 프리 파티, 골든 글로브 시상식 예뻐 파티, 열본 존과 사뎀 오스번의 자선 이벤트 등이 그녀의 작품들이다. 또한, 리츠 칼튼 라구나 니콜 호텔 결혼식, 센추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E 캐피탈 이커머스 연회 등 독특한 테마 연출이 필요한 기업 이벤트와 워딩 리셉션 등 그녀의 손길이 닿은 이벤트 공간은 수없이 많다.

“모든 이벤트에서 린넨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행사 공간의 메인 테마는 린넨의 컬러와 디자



자연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테이블 린넨과 포인트를 준 냅킨. (와일드플라워 린넨 제공)

행사장 시설등 이벤트 테마에 맞게 색깔 입혀
그래미·골든 글로브 시상식 파티장 등 대표작

인으로 정해지죠”
그녀는 린넨 디자인을 할 때 무엇보다 컬러를 중시한다. 수백 명의 유명인사들이 모이는 파티에 소개된 와일드플라워 린넨의 색상은 즉각적인 반응을 타고 그 해의 유행 컬러가 되기 일쑤다. 무엇보다 그녀는 서로 다른 톤을 혼합하는 믹스 앤 매치를 잘 활용하는 디자이너로 유명하다. 유치한단하기 짝이 없는 색깔의 린넨도 그녀의 손에 들어와 다른 톤의 린넨과 매치되면 세상에 볼도 없는 우아하고 세련된 린넨으로 볼변한다.

앞으로 지난해 그녀가 린넨 장식을 담당했던 파티에 조지 알마나의 크래에티브 디렉터가 찬성했다가 “나야말로 자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기만 하면 최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네다. 사람의 손에서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생강채로도 깊은 바다 속 혹은 푸른 자연 속에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지”

행사 규모에 상관없이 독특하고 세련된 공간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와일드플라워는 모두 환영한다는 그녀가 린넨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조카의 결혼식을 담당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조카인 만큼 최고의 결혼식을 연출해주고 싶었던 그녀는 생각에 상상을 더해 테마를 정하고 린넨 물색에 들어갔다.

(5면에 계속)

회사 설립 5년도 안돼 주류사회 탑 클래스로

<1면서 계속>

그러나, 아무리 뛰지고 뛰져도 그녀의 디자인에 적합한 고급 린넨을 대여해주는 회사가 없어 머릿속에 그렸던 결혼식 분위기를 끝내 연출하지 못했던 것.

너무나도 실망한 그녀는 친구인 유명 셰프 볼프강 쾅(그녀의 남편이 레스토랑 비평으로 유명한 신문기자 리처드 마틴이다)에게 고민을 늘어놓았고, 쾅은 자신도 파티마다 고급 린넨 렌탈 아이템을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며 '네가 한 번 해 보는 게 어때' 하며 권유했다고 한다.

패션계에 몸담고 있었기에 린넨 디자이너로 변신하는 건 비교적 수월했다. 우선 섬유(Fiber)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했던 그녀는 패브릭 마케팅 리서치를 시작했고 1년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고급 린넨 렌탈회사 '와일드플라워 린넨'을 설립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그녀도 전전공공했다.

"초창기 한 이벤트 업체가 퇴근 무렵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일 열리는 파티인데 도대체 린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도움을 요청했죠. 지금 이 기회다 싶어서 우리가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날 밤 린넨을 주문해서 아침에 파티장 소로 실어 날랐죠. 아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딱 하나, 바로 한국사람 밖엔 없을 겁니다"

영 송씨에게 린넨 디자인은 미술 작업과 다름 없다. 퍼시픽 디자인 센터내 와일드플라워 LA 소품에는 수십 가지의 린넨들이 전시돼 있다.



연보라색 린넨에 반짝이 장식으로 단조로움을 탈피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와일드플라워 린넨 제공>

패션 디자이너서 변신... 도전과 근성으로 역경 헤쳐

나만 변신은 나만이 변신해왔다. 테이블 장식 트렌드는 항상 패션 트렌드를 뒤쫓아간다고 분석하는 그녀는 자신이 전공한 패션 디자인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지닌 특유의 근성이 지금의 빠른 성공에 다가선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패션 인스티튜트를 졸업한 그녀는 80년대 중반 프레드 시갈(Fred Segal) 등 멜로즈 애비뉴의 패션 부티크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들을 판매할 정도로 잘 나가는 패션 디자이너였다.

'영송 컨템포러리 세퍼레이츠(Youngsong Contemporary Separates)'와 '와일드플라워(Wildflower)' 두

곳을 했던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육아에 전념하는 가정주부의 길을 택했다.

4~5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면서 꽃을 심고 나무를 키우는 정원 가꾸기에 재미를 붙였고, 자연과 더불어 숨쉬며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됐다는 그녀.

지금도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주택으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은근히 자랑했다.

"정원 가꾸기가 컬러 사용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는 그녀는 "이벤트 데코의 현 트렌드를 보면 대답하고 밝으면서도 고상하고 세련된 컬러가 풍부한 패브릭

회사가 번창하면서 일거리가 많아지자 LA에도 쇼룸이 있어야겠다는 막연한 구상을 갖게 된 무렵 그녀에게 웨스트 할리웃에 위치한 퍼시픽 디자인 센터(Pacific Design Center)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패브릭 디자인에도 점점 관심이 생겼기에 텍스타일 분야를 추가해 사업도 확장할 겸 퍼시픽 디자인 센터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지난 15일 와일드플라워 린넨의 LA쇼룸은 키오프 오픈링 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패션잡지 '인스타일(Instyle)'과 '글래머(Glamour)' '우먼스웨어데일리(Woman's Wear Daily)' 패션 기자들과 유명인사들

"올해는 웨딩의 경우 라벤더 컬러가, 이벤트 디자인은 블루 계열의 색상에 반짝거리는 소재가 유행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녀는 "패션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의상, 개성이 넘치는 의상을 입히는 작업이라면, 린넨 디자인은 테이블과 의자에 패셔너블한 옷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와일드플라워 린넨(Wildflower Linen)의 LA쇼룸은 퍼시픽 디자인 센터 그린빌딩 2층(Pacific Design Center, 8687 Melrose Ave. G-285 West Hollywood)에 위치해있다. 전화번호는 (310)360-9899.

<글 하은선 기자·사진 신효섭 기자>